01 교회소식
결실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섬세하신 그 손길을 체험하며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

02 생명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어 결국 지옥 곧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03 기획특집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신속히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오기 바란다.

04 간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에서 특허 부문을 수상한 성낙훈 장로와 질병 치료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일본 빈센트 장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761호 2016년 10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 안에서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고 그 신뢰의 농도가 진해지는 만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섬세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행복한 소식을 전한다.

임승호 형제(중3선교회)는 지난 9월 8일, 국제문화예술교육회 주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전국대회' 트럼본 부문에서 특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는 친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선천성 마비성사시를 치료받는 것을 보며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뒤 기도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트럼본을 연주할 때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대회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사진 1).

1청년선교회 문영찬 형제(중앙대학교)는 1학년 1학기 전 과목 A^+를 받아 학년 수석으로, 2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축복을 받았다. 사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세상에 급속히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생명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목자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후 그는 일꾼이 되었고 이재록 목사의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를 적용해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 결과, 대학 진학 후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다(사진 2).

성낙훈 장로(만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2003년 국제 특허사무소를 연 뒤 오랜 땀과 노력의 결실로 지난 9월 2일, 한국전문기자협회 주최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 특허부문에서 수상하는 큰 영예를 얻었다. 이는 누구든지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면 중개기능과 분석기능을 통해 특허 교환(IP-Exchange)을 할 수 있는 'IOU 웹사이트'의 혁신기술을 개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연유이다.

그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며 변개함 없는 곧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다(사진 3).

이 밖에도 지난 9월 29일 (사)한국시조명인협회 주최로 열린 '제15회 전국시조명인경연대회'에서 이명숙 권사(2대대 12교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고 출전해 대상부 장원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사진 4).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김대성 집사(수원시청 소속)는 '2016 회장기 전국실업배드민턴연맹전'에서 개인전 혼합복식 금메달을 수상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김 집사는 "9월 12일 결선 당일 새벽에 당회장님께서 하이파이브를 세 번이나 해 주시는 꿈을 꾸고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사진 5).

이홍국 성도(3대대 28교구)는 지난 9월 10일에 열린 국방일보 주최 '전우마라톤대회' 일반 남자부 10km 부문 1위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9월 25일, 청주시체육회 주관 '제14회 청원생명쌀 대청호 마라톤대회' 풀코스에서 1위를, 10월 23일 국내 최고 마라톤 축제인 '제70회 춘천 전국마라톤대회'에서는 일반부 2위를 차지했다(사진 6).

이재아 자매(중1선교회)는 9월 28~29일에 부천교육지원청 주최 '학년별육상대회' 중1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각각 1등을(사진 7), 허지혜(고3선교회) 자매는 9월 8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제10회 서울시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결선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8).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감사와 기쁨, 성실로 공의를 쌓으면 누구든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온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마음에서는 진리를 좇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며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지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곧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4:20).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라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하셨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령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도 영이 죽은 육의 상태로 태어났으며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지옥 곧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고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옹호하였고(요 7:50~5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요 19:39). 이는 그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려줍니다.

2.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곧 영생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 됩니다.

물이 더러움을 씻어 주고 만물에 생명을 주듯이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요. 미움, 혈기 등의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질 때 거듭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벧전 3:21).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물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고 행할 때, 성결한 의인이 되며 이것이 구원받은 증표가 됩니다.

3.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15:26 ; 행 2:38), 죽었던 영이 살아나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5~8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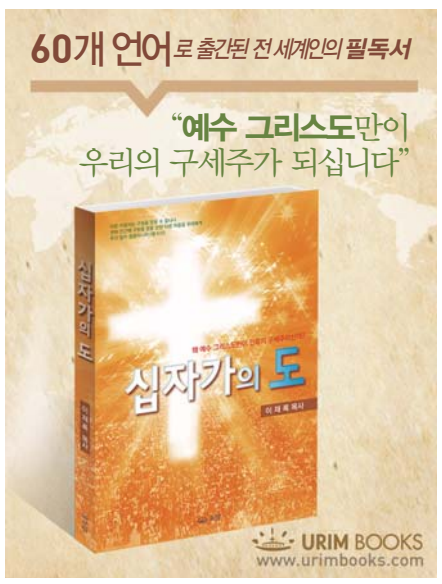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 주신 성령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이것은 세상 정욕과 싸워 이기므로 범죄하지 않고 비진리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할 뿐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를 이뤄야 함을 알며 심판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아갑니다. 마음의 죄악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점차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많은 영혼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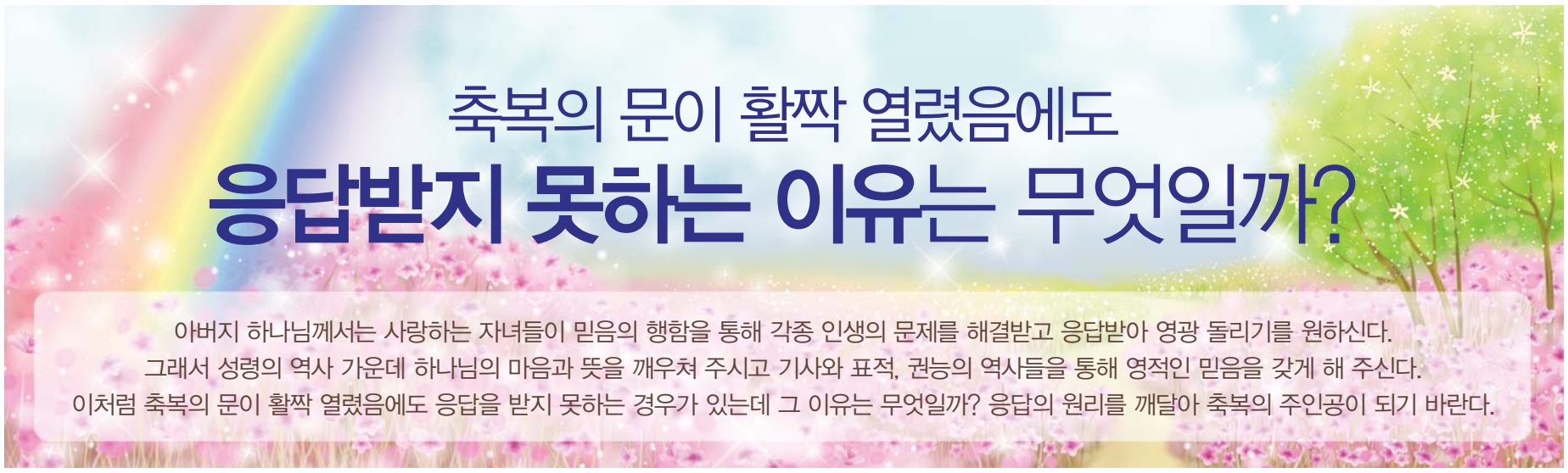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쳐 주시고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
이처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의 원리를 깨달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

첫째, *응답받기 위해 각자가 채워야 할 분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일곱 영을 통해 측정하시는데, 이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충성, 사랑의 일곱 가지 항목을 말한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맞춰 측정하시기에 각각 그 합격선은 다르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행하지 않고 응답받을 생각만 한다면 이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바라는 욕심과 다름없다. 기도도, 충성도 안하고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돌이키려 하지도 않으며, 주일 성수, 십일조 등 계명을 여전히 자기 편의대로 지키면서 응답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에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혹여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해서,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기 바란다(고전 2:10 ; 엡 4:13).

둘째,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다. 즉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니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고 확증하는 행위이다.

말이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다(잠 18:21).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기다리게 된다.

혹여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아야 한다. 마음에서 응답받았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받기 위해 채워야 할 공의의 분량을 채우면 응답은 즉시 임하게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애초에 응답의 확신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현실 그대로를 말한 것 같지만 이는 응답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믿음의 고백을 못한 것이다.

더욱이 명심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이미 채운 분량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응답을 못 받았다며 불평불만하고 서운해하며 실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랐다는 것이다.

만일 응답이 지연되는 듯하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봄으로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채워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서히 축복이 임하고, 질병이나 연약함이 치료될 때도 점차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역사해 주신다.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셋째,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보장받는 종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빌게 하심으로 스스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큰 응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식사거리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우 없는 청을 하지?' 했다면 가루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왕상 1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 떼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받는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일이지만 특히,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는 종을 판단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민수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세를 판단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보장받는 종을 판단하고 의심하는 등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졸음과 잡념이 틈타 축복의 비결이 담긴 말씀을 듣지 못하기도 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이런 악한 생각이 있었다면 자신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깨달아 철저히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특허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만민국제특허사무소 대표
성낙훈 장로(57세, 2대대 12교구)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 9월 2일에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특허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치, 의정, 행정 등 총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이었습니다.

이날 저희 만민국제특허사무소가 국내 대형로펌을 포함한 수많은 특허사무소 중에 대상을 받은 것은 국제간 특허출원에 있어서 신뢰와 정보의 중개를 통해, 상호간 호혜적 공정거래를 진행시키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선한 삶의 본을 보이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대하며 신앙생활에 열심 낼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영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2015년 5월에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31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간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개인기도 시간에 사업터를 놓고 기도하는데, ‘국제특허 중개시스템’과 ‘빅 데이터의 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바로 메모하였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특허의 거래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왔지요.

빅 데이터와 통계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분석을 그토록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15년 9월 2일,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경과된 2016년 9월 2일, 이로 인해 특허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3년 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저는 첫 직장이었던 특허청을 그만두고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임대하여 특허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품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만민국제특허사무소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살아 계셔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만민국제특허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축복의 공간에서 응답받는 삶, 행복합니다”

빈센트 장 장로
(51세, 일본 동경만민교회)

제가 근무하는 TFK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기내식 전문업체로 전 세계에 2만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인으로, 현재 일본 자회사에 발령을 받아 경영 부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6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상 세계를 다니며 일을 하는 저는 아내(에스더 심)를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된 뒤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책자를 대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약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할 때에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랑장’ 등의 설교를 듣고,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상)(하), 『믿음의 분량』, 『영혼육』, 『십자가의 도』, 『지옥』을 읽으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던 성경 말씀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2014년 10월부터는 일본으로 발령을 받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아내를 통해 동경만민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최병란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생활을 하며, GCN 생방송으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니 주일학교 영어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는 등 봉사할 일을 찾아 기쁨으로 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통해 성결한 자녀를 얻기 원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은 당회장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의 희생으로 주어진 값진 선물이기에 저는 직원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 책자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물한 책만 해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중순,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 뒤 다시 그 증세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말씀(출 15:26)이 떠올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자복을 하였습니다.

7월 중순이 되자 증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장, 방광, 요로감염 등의 항목별로 자세히 검진해 보니 전립선염 증상이 사라지고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지만 제가 직접 믿음으로 치료받으니 하나님 사랑이 더욱 느껴졌고 믿음이 되었지요.

10월 초, 만민중앙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가 가득한 교회에서 축복의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목도하며 천국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 동경만민교회 최병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